



일생을 학교보건에 바친 사람

김 일 성 · 서울 강동교육청 학교보건계장

일 생을, 학교보건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다. 남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학생건강과 학교보건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되었다는 사람.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의 김 일성 학교보건계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복사기 앞에 서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탁해도 좋을만한 손수 긁은 일을 마다하

지 않는 그는, 지위 고하를 떠나 누군가의 허드렛일을 할 시간에 보다 나은 교육현장 실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교육청 11개 지역 교육청 보건행정직 공무원 중 최초의 정년퇴임자라는 김계장에게 퇴직을 앞둔 소감을 물었더니, 『덤덤합니다. 1959년에 학교 보건소에 입사했으니까 군 생활을 제외하면 35년을 학교보건과 같이 했는데, 정작 그날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은 실감이 안 갑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고...』라고 한다. 소감을 물은 것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하는 대답이다.

김계장은 1959년 학교보건과 인연을 맺은 후 학교건강관리소(1965), 시교육청 보건담당(1983), 학교건강관리소 원무계장(1985), 동작교육청 학교보건계장(1994)을 거쳐 현직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길을 고집해 왔다.

『처음에는 20명의 인원으로 기생충·보건·위생 등 모든 일을 했었죠. 분야별로 세분화된 요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

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현재 환경 위생정화, 급식, 학생·교직원 건강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그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이곳 송파구와 강동구에만도 결식아동이 1,600여명에 이릅니다. IMF 사태 이후 결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 70%는 교육청과 구청, 그리고 부녀회 등 외부의 지원으로 급식이 가능하지만 30% 정도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 대한 완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지요.」라는 김계장은, 이웃의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또 하나 관심을 갖는 일은, 당뇨와 비만 같은 소아 성인병, 그리고 약물중독 등 학생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일들. 현재 57개 초등학교와 40개 중학교를 관장하는 이곳에서 그는, 학생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보건교육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성인병 예방사업에도 남다른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 왔다.

기생충관리사업 때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맺은 인연을 연결 고리로 하여 건협의 공익보건사업에 누구보다도 큰 이해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김계장은, 학교보건사업과 건협의 건강증진사업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 보건복지를 위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더불어 잊지 않았다.

평소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아버님 같으신 분, 권위주의나 관료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 몸소 실천하고 직접 발로 뛰는 행동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직원의 어려움은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묵묵히 도맡아 하는 그의 퇴직을 누구보다도 아쉬워하는 윤덕섭씨(강동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는 이런 말을 전한다.

「강동교육청으로 오신지 2년이 채 되지 않으셨지만,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일례로 13여년 전에 학교보건원 원무계장으로 계실 때의 직원들이 지금도 김계장님께 연락을 합니다. 평소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 그리워진다고... 그 정도로 김계장님은 친절이 생활화되신 분이십니다. 저도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산에도 더 열심히 다니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김일성 계장의 소박한 소감이, 이런 저런 학력이나 경력, 직함을 내놓는 유명인사보다도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주변의 이런 평가 아닐까.

평생을 주어진 일에만 충신했던 김일성 계장.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학생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에서 학교 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을 더 많은 김일성 계장을 생각해 본다. 72